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에티오피아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2020년7월21일 | 책임조사역(G3) 박지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104천 km ² 	인구 1.15억 명 (2020 ^f) 	정치체제 연방제 내각책임제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추구 
GDP 906.4억 달러 (2020 ^f) 	1인당GDP 788.5 달러 (2020 ^f) 	통화단위 Birr 	환율(U\$기준) 33.87 (2020 ^f) 

- 아프리카 대륙 동북단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지부티·소말리아(동), 수단·남수단(서), 케냐(남), 에리트레아(북)와 국경을 접하고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2019년 기준 약 1.1억 명)임.
- 에티오피아 경제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0%의 성장을 시현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음. 2019년 경제는 서비스 부문 호조 및 제조업 성장 등에 힘입어 7.2%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총선을 앞두고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의 수장인 아비 총리와 오로모 민주당(ODP) 핵심 간부들을 주축으로 2019년 11월 EPRDF 내 3개 정당 및 기타 5개 정당으로 구성된 단일 정당인 번영당(PP)이 창당되었으며, PP는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다만, 8월로 예정되었던 총선은 코로나19로 무기한 연장된 상태임.
- 2018년 4월 오로모족 출신 아비 총리 취임 후 정세가 다소 안정되는 듯하였으나 6월 29일 발생한 반정부 성향의 유명가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유혈사태가 다시 발생하여 정세가 불안한 상황임.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3. 12. 23 수교 (북한과는 1975. 6. 5)

주요협정 문화협정(1998), 무역협정(2003),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2011), 무상원조협정(2011), 과학·기술협력협정(2012), 이중과세방지협약(2017), 항공협정(2017)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 출	113,982	104,921	92,323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수 입	61,976	54,448	57,224	기호식품, 산식물, 곡실류, 의류

해외직접투자현황('20.3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21건, 46,731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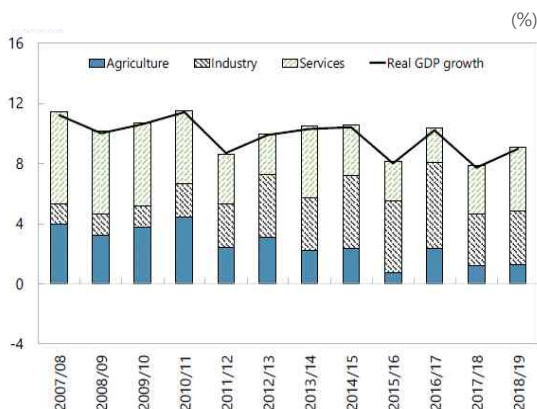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9.4	9.5	6.8	7.2	-2.4
소비자물가상승률	7.3	10.9	13.8	15.8	21.3
재정수지/GDP	-1.9	-3.8	-2.5	-2.7	-5.8

자료: EIU

과거 정부 주도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부족

- 에티오피아 경제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0%의 성장을 시현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크게 개선되었음.
-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외자금(부채) 조달을 통한 공공투자로 경제성장 모멘텀이 강하였으나, 한정적인 세수 및 정부의 차입 증가에 따른 재정구조 악화로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는 한계가 있는 가운데, 더딘 민간투자 부문 성장세로 미래 성장동력이 부족한 상황임.
- 2019년 경제는 서비스 부문 호조 및 제조업 성장 등에 힘입어 7.2%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국영기업 부채 관리 및 재정수입 부족에 따른 정부예산 제약으로 공공투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 2019년 재정적자는 GDP의 -2.7% 수준으로, 정부는 GDP의 12.7% 수준의 적은 재정수입에도 불구하고 긴축적 예산 운영으로 지난 10년간 GDP의 -3~-1%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관리해왔음.
- 다만, 협소한 세수기반 조건에서 예산을 긴축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회보장적 지출(빈민층 지원)과 자본적 지출(인프라 투자)을 축소하고 있어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연도별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2007~19년)



자료: IMF

연도별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향후 추정)



자료: Fitch Solutions

국내경제

대규모 메뚜기 떼 창궐과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타격 불가피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및 동아프리카 지역의 대규모 메뚜기 떼 습격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 급감, 절대적 교역량 감소, 외국인투자 유입 축소, 비거주자 송금 유입 감소로 2020년 경제성장률은 -2.4~3.2% 수준으로 급락하고, 소비자물가는 21.3%(EIU 기준)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됨.

* IHS Markit¹⁾에 따르면 메뚜기 떼 습격으로 2020년 2월 중순까지 농작물 가치(crop value)의 20%가 소실됨

-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4월 3일 16억 달러(GDP의 1.6%) 규모의 필수 의료 및 식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단, 일시적인 긴급자금 투입에 따른 정부지출 확대로 2020년 재정적자는 GDP의 -5.8%(EIU 기준)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기관별 에티오피아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구 분	세계은행(6월)	IMF(4월)	EIU(7월)	AfDB(7월)	IHS Markit(7월)
2020년	3.2	3.2	-2.4	3.1	3.3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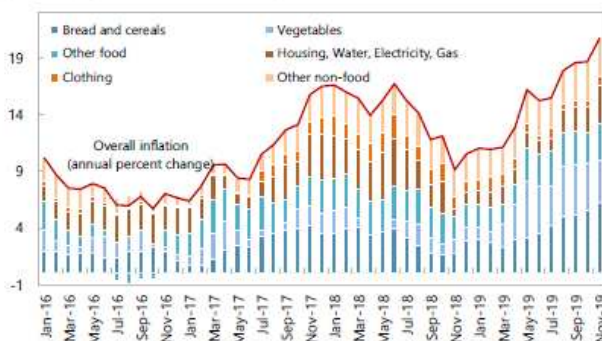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10%대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기록 중

- 201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CPI의 53% 차이를 차지하는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15.8%를 기록하였으며, 물류비 증가 등에 따라 비식료품 가격도 지속 상승하는 추세^{*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1년 33.2%, 2012년 24.1%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았으나 정부의 긴축 통화정책 및 저유가 기조로 이후 한 자릿수가 유지되었음. 그러나 2017년 10월 비르화 평가절하(미달러 대비 15% 평가절하)로 수입품 가격이 인상되어 다시 10%대로 상승하며 물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

부문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2016~19년)

(%)



자료: 에티오피아 통계청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IHS Markit

1) IHS Markit Ethiopia Country/Territory Report, Monthly Outlook(7.6자)

2) 세계은행 Global Economic Prospect(6월); IMF World Economic Outlook(4월); EIU Data Tool(7월 3일 데이터 추출); AfDB East Africa Economic Outlook 2020(7월); IHS Markit Ethiopia Country/Territory Report(7월). 단, 7월 EIU Country Report 상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0.6%으로 Data Tool 상 예측치와 상이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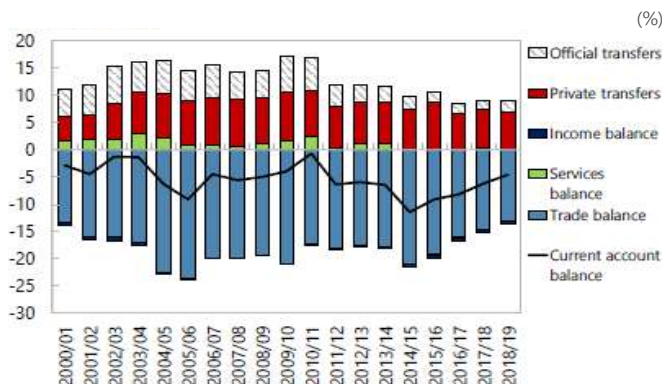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상수지	-7,905	-5,929	-4,611	-4,764	-5,092
경상수지/GDP	-11.0	-7.7	-5.8	-5.6	-5.6
상품수지	-11,917	-11,206	-11,021	-11,491	-9,916
상품수출	2,811	3,030	2,705	2,776	1,763
상품수입	14,728	14,236	13,726	14,267	11,679
외환보유액	2,970	3,022	3,958	2,965	2,248
총외채	25,553	24,670	28,101	28,651	34,486
총외채잔액/GDP	35.4	32.1	35.0	33.4	38.1
D.S.R.	22.2	23.3	20.8	28.3	49.4

자료: IMF, EIU

대규모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수입 억제 노력으로 적자 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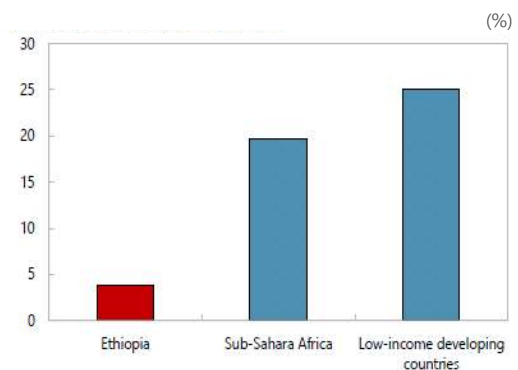
- 에티오피아는 비거주자의 해외송금, 외국인투자 유입에도 불구하고 GDP의 16.5%(10년 평균비율)에 달하는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하고 있음.
- 이는 주요 수출품은 농산품(커피, 오일씨드, 까트)으로 부가가치가 낮을 뿐 아니라 농산물 국제가격 변동과 자연재해에 취약하지만, 주요 수입품은 자본재로 부가가치가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 정부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 추진으로 수입수요가 급증한 것에 기인함.
- 다만, 최근 정부는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와 국영기업의 자본재 수입 억제 노력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한 수출품목 다양화 정책 등을 펼치고 있어 2014/15회계연도 이후 경상수지 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수출품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GDP 대비 연도별 경상수지



자료: IMF

2016-18년 GDP 대비 상품수출 비중



자료: IMF

외채상환능력

외환보유액 부족은 외채상환 부담 가중의 고질적 요인

-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및 외환 부족을 겪는 가운데 재정수입 기반 확대보다는 대외차입을 통해 추진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은 대외환경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초래하였음.
 - * 2019년 기준 1~3위 상품수출품은 모두 농산물(커피 34.4%, 오일씨드 25.0%, 까트 10.5%)으로 전체 상품수출액의 69.9%를 차지하는 등 비농업 부문의 수출기반 협소(자료: EIU)
- 2019년 말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1.8개월분(29.6억 달러)으로 만성적인 외환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적채무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외채 중 일부 대규모 건들의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고 있음.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외화소득원(서비스업 소득, 비거주자 송금, 외국인투자자유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 부담** 및 외채상환 부담이 가중됨.
 - * 외환 부족은 건설자재, 장비 등의 수입자금 결제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어 건설업, 제조업, 관광업 등 비농업 부문의 프로젝트 지연 및 외국인투자 부진의 주된 요인이 됨.
 - ** 정부채무/재정수입(%) : (2016) 171.8, (2017) 206.5, (2018) 245.9, (2019^e) 243.6, (2020^f) 293.9 (자료: Moody's)
- 2020년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은 외채원리금상환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총수출 급감에 따라 2019년 28.3%에서 4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양자·다자 채무상환 유예 및 자금지원 확대

-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최빈국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교역 위축, 세계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주 외화 소득원이 급감한 가운데 보건, 의료, 저소득층 지원 등에 필요한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여 외환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우려한 G20, 중국*, IMF 등은 이들 국가들의 채무상환을 일부 유예하고 긴급자금을 지원 중임.
- G20 국가는 4월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최빈국들의 채무상환의 한시적 유예에 합의하였으며, IMF는 에티오피아에 대해 2020년 5월, 411백만 달러의 신속금융제도(Rapid Financing Instrument: RFI)를 승인*하였음.
 - * 중국은 6월 중국-아프리카 코로나19 대응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對중국 무이자 차관 상환을 면제할 것이라고 밝힘.
 - ** RFI를 최대한도로 지원하기 위해 RFI 승인과 동시에 2019년 12월 승인한 확대금융(EFF) 승인액을 감액하고 확대신용(EFF-ECF) 집행 시기를 조정하였음. 에티오피아 정부는 국내 경제개혁 프로그램인 Homegrown Economic Reform Program을 통해 만성적인 외환보유액 부족 문제 해소, 민간 부문 성장 제약요인 극복, 부채-금융 부문 취약성 감소, 국내 자원조달 확충을 위해 IMF ECF-EFF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음.

구조적취약성

국영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를 통한 체질 개선 도모

- 에티오피아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산업, 건설, 금융, 통신, 물류, 운송,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국영기업을 통한 공공인프라 투자에 직접 관여하여 왔으나, 과도한 차입을 통한 투자로 국영기업뿐 아니라 이들 앞 보증을 제공하는 정부(우발채무 증가)의 재정 및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음.
- IMF에 따르면, 2018/19회계연도 말 국영기업의 총부채는 GDP의 26% 수준으로, 이중 14%는 에티오피아 상업은행(Commercial Bank of Ethiopia: CBE)의 회사채 및 대출에 따른 것임.
- 또한, 한정된 자원 조건에서 상업금융(은행)의 국영기업 앞 대출은 민간기업의 금융자원 접근성을 상대적으로 제한시키는 요인이 되어왔음.
- 이에 정부는 정부-국영기업의 재무구조 및 체질 개선, 민간 부문 활성화를 통한 민간 주도형 성장 모델 추진을 위해 국영기업의 부채관리 강화, 민영화 추진, 관리·감독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 중임.
- 재무부는 신규 차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보증을 제한하기 위해 2017년 공적채무 관리 및 보증서 발급 지침을 도입함. 또한, 비양허적 차관을 통한 대외자금 조달을 제한하고 있으며 양자 채무 건들에 대해 채권국과 약한 강도의 채무조정인 리프로그파일링(refiling)을 모색한다고 밝힘.
- 한편, 정부는 통신, 설탕 제조공장, 산업단지, 항공, 철도, 에너지, 물류 등 분야에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 절차를 이미 시작하였음.
- 주에티오피아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재경부는 자국 내 유일 통신업체인 에티오텔레콤 총 지분의 40% 매각 절차를 진행(입찰) 중이며, 설탕 제조공장 13개에 대해서는 환경·사회적 영향평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중 10개 공장에 대한 입찰 공고를 발표할 예정임.
- 이러한 정부의 국영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노력은 외국기업 및 자국 민간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UNCTAD에 따르면, 미국은 2019 아프리카 번영 이니셔티브를 통해 2022년까지 에티오피아 내 민영화가 추진 중인 산업(통신, 지열 에너지, 물류, 설탕 제조공장)에 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힘.
-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민간 부문의 위험회피 경향 증가 및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민영화 추진은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성장잠재력

최근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간개발지수·교육수준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

- 에티오피아 경제가 최근 10년간 고성장이었음에도 절대 빈곤층(소득 1.9달러/일 미만) 비율이 27.3%³⁾에 달하는 등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못해 여전히 대다수 국민의 생활환경이 열악한 상황임.
- UNDP 2019년 인간개발지수 평가에서 에티오피아는 총 189개국 중 173위로 최하위권에 속하였으며, 전방위적인 인프라 개선⁴⁾ 및 도시-지방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긴요한 상황임.
- 에티오피아는 2019년 기준 1.1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 내 인구 규모 2위의 대국임. 인구 규모나 구성(중위연령 19.5세, UNDP)을 고려 시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숙련된 노동인구는 전체 노동인구의 6.8% 수준(UNDP)이고, 정규 교육 기간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성장잠재력과 비교하면, 인적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며, 특히 여성에 대한 교육이 취약함.

에티오피아 인간개발지수 및 세부항목 지표 추이

연도	기대수명 (세)	평균 정규교육 (년도)	1인당 GNI (2011 PPP\$)	인간개발지수 (HDI)
2000	51.9	1.5	617	0.283
2010	61.6	2.3	1,071	0.412
2015	65.0	2.6	1,512	0.453
2018	66.2	2.8	1,782	0.470

자료: UNDP

2018년 교육 관련 인간개발지수 항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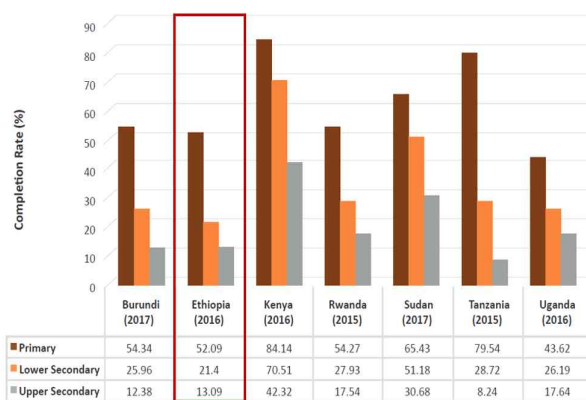
국가	평균 정규 교육기간			기대 정규 교육기간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에티오피아	3.9	1.6	2.8	9.1	8.3	8.7
르완다	4.9	3.9	4.4	11.2	11.2	11.2
우간다	7.4	4.8	6.1	11.5	10.4	11.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6.6	4.8	5.7	10.4	9.3	10.0

자료: UNDP

- UNESCO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정규 교육과정 이수율은 초등학교 52.1%, 중학교 21.4%, 고등학교 13.1%로 탄자니아, 케냐 등 주변국(우간다 제외)에 비해 낮으며, 인구 대다수가 정규 교육과정을 수학한 경험이 없어 경제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고급 인력 양성이 절실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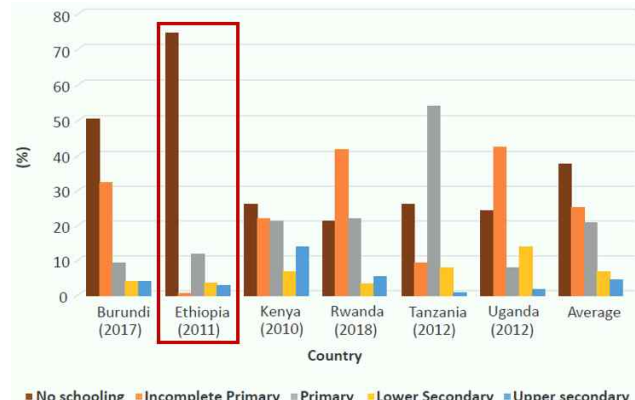
* AfDB 보고서⁵⁾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82,878명의 철도기술자(2015~44년 중), 40만 명의 섬유·가죽·리류·농산물 가공 관련 숙련 노동자, 2025년까지 1.2백만 명의 제조업 종사자 및 에너지 부문 관련 8,000~11,500명의 TVET 수준의 졸업생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

동아프리카 국가별 학교 졸업률



자료: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AfDB, 2019 재인용)

동아프리카 국가별 25세 이상 인구의 교육 이수 수준



자료: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AfDB, 2019 재인용)

3) UNDP <http://hdr.undp.org/en/countries/profiles/ETH> (접속일자 2020.7.1.)

4) UNDP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평균 정규(학교) 교육 기간 2.8년(기대 교육 기간 8.7년), 개선된 식수원 이용률 41%(2017년 기준), 개선된 위생시설 접근율 7%(2017년 기준), 지방 거주 인구의 전력보급률은 31%임. (출처: <http://hdr.undp.org/en/countries/profiles/ETH>, 접속일자 2020.7.13.)

5) AfDB, East Africa Economic Outlook 2020 (7월)

정치동향

2019년 11월 창당된 번영당(PP)이 집권당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은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TPLF), 암하라 민주당(ADP), 오로모 민주당(ODP), 남부에티오피아 인민민주운동(SEPDM) 4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당으로, 1991년 사회주의 군사정권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한 이후 실질적인 준 일당 지배체제로 집권당 지위를 유지하여 왔음.
-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2019년 11월 EPRDF의 수장인 아비 총리와 ODP 핵심 간부들 주도로 EPRDF 내 3개 당(ODP, ADP, SEPDM)과 기타 5개 정당*으로 구성된 단일 정당인 번영당(Prosperity Party: PP)을 창당하였음.

* Afar National Democratic Party(ANDP), Benishangul Gumuz People's Democratic Party(BGPDP), Gambella People's Unity Democratic Movement(GPUDM), Harari National League(HNL), Somali Democratic Party

- TPLF*은 2020년 1월 5일 공식적으로 EPRDF를 탈당하며 번영당에 합류하지 않았으며, ODP와 ADP의 민족주의 성향의 일부 당원들도 지역주의 성향을 보이는 경쟁 지역당으로 이적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재 ODP와 ADP가 의회 의석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90%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였던 EPRDF만큼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아니지만, 번영당이 집권당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분석됨.

* TPLF는 전체 의석의 7%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과거 EPRDF 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ODP와 ADP의 연대 강화 및 2018년 4월 아비 총리 부임 후 EPRDF 내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음.

- 총선은 2020년 8월로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로, 빨라야 2021년 7~8월 중 총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파르, 암하라, 오로미아 주 등에서 여·야 정당 간 정치적 경쟁이 총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IHS Markit, 2020년 7월 보고서).

사회동향

반정부 성향의 유명 가수 피살로 민족 간 갈등 재점화

- 에티오피아는 경제평화연구소(IEP)의 2020년 세계평화지수에서 전체 163개국 중 133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4개국 중 34위를 차지하는 등 민족 간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상당히 높음. 동 보고서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내 폭동 및 시위 건수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500% 증가하였으며, 대다수의 시위는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둘러싸고 있는 오로미아 주에서 발생하였음.

- 오로모족은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민족임에도 정치·경제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며 2016년부터 반정부 시위 활동*을 주도하였으나, 이후 2018년 2월 하일레마리암 총리 사임 및 4월 오로모족 출신 아비 아흐메드 알리가 총리 취임 이후 정세가 다소 안정되었음.

* 반정부 시위로 2차례에 걸쳐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됨(1차: 2016년 10월 ~ 2017년 8월, 2차: 2018년 2월 ~ 2018년 6월)

- 그러나 6월 29일 발생한 반정부 성향의 유명 가수 하차루 훈데사* 피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은 6월 30일부터 아디스아바바와 훈데사의 고향 암보 등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여 진압에 나선 군인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 7월 8일(현지시간) 현재까지 최소 2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3,500명 이상이 체포되었으나 그 규모는 당분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 오로모족에게는 상징적 인물로, 2015년 반정부 시위 당시 오로모족 출신 훈데사의 노래가 저항가로 사용됨

- 한편, 아비 총리 취임 후 오로모족으로 정권이 이양됨에 따라 기존 주류세력인 티그라이족(인구의 6%)과 주요 민족인 암하라족(27%)의 잠재적 불만도 높아진 상황으로 총선까지 부족·정당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국제관계

2018년 9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에리트레아와의 관계 개선

- 에리트레아는 1952년 에티오피아에 합병된 이후 전쟁 끝에 1993년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하였으나, 1997년 양국 간 국경 분쟁이 1998년 무력 충돌로 비화되어 1998~2000년 동안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양국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었음.
- 이후 2000년 12월 평화협정 체결로 양국 간 국경 분쟁이 해소되는 듯하였으나, 2002년 국경지대인 바드메(Badme) 지역을 에리트레아에 귀속시키라는 국경위원회가 제시한 알제 협정에 에티오피아가 불복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이 재고조되었음.
- 그러나 2018년 4월 취임한 아비 총리가 알제 협정을 전격 수용하며 2018년 9월 평화협정을 체결, 양국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었음.

* 아비 총리는 에리트레아와의 화해를 주도한 공로로 2019년 10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음

- 2018년 7월 주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대사관이 개소되는 등 경제협력 재개를 위한 양국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2019년 4월 국경 지대 재폐쇄 및 주요 이슈* 관련 구체적인 합의 내용 부재(미공개)인 상황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좀 더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됨.

* 에티오피아의 에리트레아 항구 이용, 교역 조건(양국 통화 간 공식환율 결정 등), 국경 지역(바드메 등)의 타국 내 거주 문제

청나일 유역 수력발전소 건설로 이집트·수단 등 주변국과 갈등 지속

- 에티오피아는 2011년부터 전력난 해소⁸⁾, 경제개발 및 전력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나일 강 분지 상류에 아프리카 최대의 수력발전 댐인 6,000MW급 발전용량의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을 건설 중(5월 기준 공정률 73%)이며, 우기를 고려하여 7월부터 담수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계획하였음.
-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독단적인 댐 건설에 따라 이집트, 수단 등 하류 주변국들과 나일강 수자원 활용 및 주권 침해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이집트는 물 수요의 90%를 나일강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자국민의 수원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담수 개시 및 댐 가동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 지난 2월 미국 등의 중재로 에티오피아-이집트-수단의 3자 회담이 추진되었으나, 에티오피아 정부는 미국이 이집트 편을 든다며 동 회담에 불참을 선언하며 협상이 결렬된 바 있으며, 이후에도 댐 담수량, 시기 등에 대해 3국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
- 이후 에티오피아 정부는 담수 개시 계획을 주변국 앞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이집트 정부는 6월 20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나일 강 수자원 배분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및 중재를 요청하였음.
- 이집트 대통령실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정부는 3국의 협상 타결 전까지 일방적인 담수 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것이며, 3국 정부는 최종 협상안 작성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국가 간 입장 차이가 첨예한 만큼 단기간 내 최종 협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8)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총인구의 전력 사용률은 44.8% 수준임.
1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외채상환태도

1992년 이후 총 5차례에 걸친 파리클럽 채무리스크줄링 경험 (금년 채무상환 유예 중)

- 에티오피아는 파리클럽으로부터 5차례(1992~2004년)에 걸쳐 리스케줄링 및 외채탕감을 받은 경험이 있음. 파리클럽⁹⁾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에티오피아의 파리클럽 회원국 및 관련 기관 앞 채무액은 총 7.6억 달러로 이중 ODA 채무액 538백만 달러, 그 외 채무액 222백만 달러임.
- 또한, 6월 파리클럽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축소를 위한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DSSI)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지급해야 하는 파리클럽 채권국 앞 원리금에 대해 채무상환 유예를 승인하였음.¹⁰⁾

IMF·세계은행의 HIPC 및 MDRI를 통한 외채탕감 수혜

- IMF와 세계은행의 고채무빈국 이니셔티브(HIPC) 및 다자채무탕감 프로그램(MDRI)을 통해 IMF, WB, AfDB로부터 2018년 8월 말 기준 각각 32.8억 달러 및 31.4억 달러의 외채를 탕감받은 경험¹¹⁾이 있음.
- 한편, 2020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25.9억 달러(단기 80.7백만 달러, 중장기 2,512.2백만 달러)이며 이중 연체는 잔액의 0.05%에 해당하는 1.2백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임.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장기외채 잔액은 270.4억 달러인 한편, 2018년 중 원리금 상환액은 19.3억 달러로 중장기 외채원리금 상환비율(당해연도 잔액 대비 상환액)^{*}은 7.1%로 낮은 수준임.

* 당해연도 잔액 대비 상환비율: 2008년 3.7% → 2014년 4.6% → 2015년 5.0% → 2016년 5.1% → 2017년 5.1% → 2018년 7.1%

9) 파리클럽은 참고용 자료로 해당 사이트에 매년 말 기준 채무국별 파리클럽 회원국 앞 채무 잔액을 게시하고 있음

10) www.clubdeparis.org (2020.6.9자 기사).

11) IMF, HIPC initiative and MDRI statistical update (2019.8월).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2020.06)	7등급(2019.06)
Moody's	B2 (2020.05)	B1 (2019.09)
Fitch	B (2019.10)	B (2018.11)

Moody's, 에티오피아의 신용등급을 B1에서 B2로 한 단계 강등

- OECD: 7등급 유지(2020.6월 평가)
- Moody's는 대규모 메뚜기 떼 내습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더불어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에티오피아 경제가 재정부담 가중(재정수입·외화소득원 감소, 정부지출 증가), 외환보유액 축소,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교역 위축 등 전방위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확대된 대내외 유동성 리스크를 감안하여 2020년 5월 7일 에티오피아의 신용등급을 B1에서 B2로 하향 조정하였음.
- Fitch는 2019년 10월 18일 정치적 불안정성, 외채원리금 상환액 증가 폭에 비해 적은 외화보유액, GDP 대비 높은 공적채무 부담 등의 이유로 에티오피아에 대해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에티오피아 경제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0%의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2019년에는 서비스 부문 호조 및 제조업 성장 등으로 7.2%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20년 경제는 코로나19 사태와 메뚜기 때의 대규모 내습 등으로 -2.4%로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3%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및 외화 부족(2019년 외화보유액 월평균수입액의 1.8개월)을 겪는 가운데, 재정수입 기반 확대보다는 대외차입을 통해 추진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은 대외환경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초래하였음. 2020년 쌍둥이 적자 폭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및 세수·외화소득 감소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자생적 경제개혁 계획을 추진 중으로 민영화를 포함한 국영기업 개혁 관련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만, 1.1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에 비해 인적투자는 미미한 수준임.
- 2019년 11월 창당된 번영당(PP)은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에 이어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 무기한 연기된 총선 전까지 정당 간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임. 한편, 2018년 4월 오로모족 출신 아비 총리 취임 후 정세가 다소 안정되는 듯하였으나 6월 29일 발생한 반정부 성향의 유명 가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유혈사태가 다시 발생, 당분간 정세 불안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에리트레아와의 관계 개선은 고무적인 성과이나 르네상스 댐 건설에 대한 이집트와 수단과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Moody's는 2020년 5월 대내외 유동성 리스크를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B1에서 B2로 강등하였으며 Fitch는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